

## 주관적평가의 색채를 가지는 로어단어들의 번역

한 정 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른 나라 말을 우리 나라 말로 번역하는 사업을 다른 나라 말의 특성에 맞게 잘하여야 합니다. 나라마다 말에서 특성이 있고 알맞는 어휘들이 있는것만큼 번역도 그에 맞게 하여야지 덮어놓고 직역만을 할것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김정일전집》 제16권 120페이지)

일반적으로 외국문학작품번역을 비롯한 모든 번역은 해당 언어의 어휘-의미적등가물을 찾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매 민족어마다 자기의 고유한 언어학적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알맞는 의미적등가물을 선택하는데서도 해당 언어의 의미-문체론적특성과 문화언어학적배경을 고려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번역실천에서 제기되고있다.

이 글에서는 로조번역리론에서 주관적평가의 색채를 가지는 로어단어를 조선어로 번역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히려고 한다.

주관적평가의 색채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랑과 증오, 존경과 경멸, 멸시 등 사물에 반영되는 사람의 감정적인 색채를 말한다. 주관적평가의 색채를 가지는 단어들은 말하거나 글쓰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적태도를 매우 섬세하고 뚜렷하게 표현한다.

로어에는 사물에 대한 사람의 주관적태도를 나타내는 축소-애칭, 확대-비칭어휘들이 있다. 실례로 로어에는 중성적어휘인 книга(책)라는 어휘와 함께 книжка라는 축소-애칭어휘, книжища라는 확대-비칭어휘가 있다. 이 어휘들은 사물의 객관적인 의미와 성질에는 관계없이 말하거나 글쓰는 사람의 주관적평가와 태도를 표현하는 어휘로서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반영되는 사물의 량적 및 질적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부류이다. 여기에서 량적인 의미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어떤 사물이 크다거나 작다거나 하는 상반되는 량적의미를 말하며 질적인 의미라고 할 때 그것은 귀엽고 사랑스럽다거나 미웁하고 보기 싫다는 등의 서로 상반되는 감정의 의미를 말한다.

사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태도와 평가의 견지에서 볼 때 사물의 량과 질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은 사물은 사람들에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지지만 큰 사물은 미웁스럽고 지어 혐오스러운 감을 주기도 한다.

사람들의 이러한 주관적평가를 반영하여 로어에서는 작고 사랑스러운 대상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축소-애칭의 어휘, 크고 미웁한 대상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확대-비칭의 어휘라고 한다.

실례로 로어단어 папа(아버지), мама(어머니)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표상밖에는 떠오르지 않으나 папочка, мамочка에는 사랑스럽고 친밀한 감정적인 색채가 보충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이 감정적인 색채는 대상이 어떠한 말하거나 글쓰는 사람의 주관적평가와 태도를 나타낸다.

물론 조선어에도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와 함께 친밀감을 나타내는 《아빠》, 《엄마》라는 단어가 있어 이 단어들에 대한 로조 및 조로어휘대응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

부에 지나지 않는다. 로어에서는 보통명사의 일부와 로씨야사람이름이 접미사에 의한 단어 조성수법에 따라 사람의 주관적태도를 나타내는 어휘들로 만들어지지만 조선어에서는 단어 조성상 특성으로부터 이런 어휘들이 전일적인 체계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книга(책)-книжка(축소-애칭), дорога(길)-дорожка(축소-애칭), дом(집)-домина(확대-비칭), человек(사람)-человечище(확대-비칭) 등 축소-애칭 및 확대-비칭의 로어단어들에 대하여 조선어로 대역을 주어야 하는 번역실천에서는 일련의 난관에 부딪치곤 한다.

그러나 사물에 대한 감정적태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수단과 방식이 민족어마다 다를뿐 모든 사물현상들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적태도는 매 민족어의 언어학적특성과는 관계되지 않는다. 문제는 사물에 대한 사람의 감정적태도를 나타내는 민족어들의 언어학적특성을 정확히 대비분석하여 번역실천에 구현하는것이다.

주관적평가의 색채를 가지는 로어단어에 대한 조선어대역수법은 로어와 조선어의 언어학적특성에 기초하여 등가적대역수법, 풀이식대역수법, 음역식대역수법, 에두름수법 등으로 갈라볼수 있다.

등가적대역수법은 주관적평가의 색채를 가지는 로어단어에 해당되는 어휘의미적등가물이 조선어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번역수법이다.

우선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조선어단어들이 로어축소-애칭어휘들과 의미적등가물로 될수 있다.

예: папочка - 아빠, мамочка - 엄마, ребёночек - 꼬마

또한 조선어속어는 로어확대-비칭어휘, 로어속어와 의미문체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로어확대-비칭어휘들은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태도를 나타내는 속어와 동일한 문체적기능을 수행한다.

예: Раньше мне говорили, что здесь можно видеть тигров. Брехня всё это.

(이전에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여기에서 범을 볼수 있다고 했다. 이건 다 개수작이다.)

풀이식대역수법은 주관적평가의 색채를 가지는 로어단어에 대응되는 어휘의미적등가물이 조선어에 없는 경우에 중성체의 기동단어에 주관적태도를 나타내는 여러가지 품사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로조어휘대역을 주는 번역수법이다. 조선어는 표현이 풍부하고 발전된 어휘구성을 가지고있으므로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정확히 나타낼수 있다.

예: Когда руки Артёма схватили Павла в свои объятия, у Павла хрустнули кости.

- Братишка! Павка!

(빠웰이 아르쭙의 품안에 안겼을 때 빠웰의 몸에서 으드득하는 뼈소리가 났다.

《아, 빠브까야, 내 동생아!》)

우의 실례에서는 《Братишка!》를 《아, 내 동생아!》로 번역하였는데 원문에는 조선어감동사 《아》와 대명사 《내》에 해당한 《О》, 《мой》라는 로어단어들이 없지만 братишка는 брат(동생)의 축소-애칭이므로 사랑의 감정을 담아 《아, 내 동생아!》라고 번역하였다.

풀이식대역수법으로 덧붙여지는 조선어품사는 주로 대명사와 형용사, 감동사이다.

조선어대명사는 로어대명사에 비해 어음론적으로나 어휘론적으로 매우 발달되어있으며 문체적기능도 다양하다.

조선어대명사들은 언어환경과 문맥에 따라 말소리들이 바뀔으로써 미움, 사랑스러움, 친숙감 등 미세한 감정적색채까지도 보충적으로 나타내고있다. 따라서 조선어에서는 기동단어명사에 표현정서적색채를 가진 대명사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조선어대명사의 이러한 표현정서적기능에 의하여 로어단어와 조선어단어의 의미적대응관계를 분석할수 있다.

그 대응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로어축소-애칭어휘: 조선어대명사(요, 고, 조, 요게, 고게, 요만, 고만, 조만)

례: — Мальчишечка, не плачь. Мама узнает, где ты, и сейчас придёт.

《요녀석, 울지마. 네가 어디 있는지 엄마가 알게 되면 당장 올거야.》

— 로어확대-비칭어휘: 조선어대명사(이, 그, 저, 이게, 그제, 저게...)

례: — Э-э-э. — сердился он. — И того уж не можешь! Сказано, мужик глупый, деревенщина! Тебе гусей пасти!»

(그는 성이 나서 말했다. 《여, 여. 그것도 못해. 인 바보같은 촌놈아! 가서 계사나 나 물구다녀라.》)

풀이식대역수법에서는 조선어형용사도 많이 쓰인다. 주관적평가의 색채를 가지는 로어단어의 의미적특징이 량과 질의 두 측면에서 나타나므로 이와 관련된 《크다, 작다, 귀엽다, 사랑하다, 친근하다, 미웁하다, 보기싫다》 등의 형용사들이 의미적기동단어에 덧붙여 쓰일수 있다.

례: А мама уже схватила меня в охапку.

— Алёшка, мой сыночек!

(어머니는 벌써 나를 얼싸안았다.

《알료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풀이식대역수법에서는 또한 조선어감동사도 적극 리용된다.

감동사는 말하는 사람의 기쁨, 슬픔, 반가움, 즐거움, 놀라움, 안타까움, 불만스러움, 사랑, 증오, 알미움, 우스움, 유감스러움 등 여러가지 감정을 나타낸다. 조선어에서 이러한 감동사에는 《아, 오, 야, 아이, 아이구, 어유, 어, 어이구, 이키, 애개, 예라, 애개개, 아니, 아차, 아뿔사, 원, 하하, 허허, 흥, 호, 흐흥, 체, 찌찌, 피, 얼씨구나, 만세 ...》와 같은것들이 있다.

이러한 감동사들은 대부분이 다의성을 가지므로 쓰이는 장면이나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감정을 나타낼수 있다.

비교: — Дочка! Маша! — сказала Марья Гавриловна, схватив её за руку. (마리야 가브릴로브나는 딸의 손을 덥석 쥐고 말했다.

《아, 귀여운 내 딸 마샤야!》) (사랑의 감정)

— Ах Дуня, Дуня! Какая девка была! Все её хвалили. (《아, 두냐, 두냐야! 참 좋은 애였지! 모두가 그 애를 칭찬했다고요.》) (슬픔의 감정)

풀이식대역수법에서는 조선어로도 많이 쓰인다.

모든 언어에서 사랑과 존경, 증오와 멸시 등 말하는 사람의 감정적태도는 말차림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조선어에서 말차림은 종결토에 의하여 매우 섬세하고 명백하게 표현된다.

조선어종결토들은 로어문장속에 있는 축소-애칭, 확대-비칭어휘들이 나타내는 사랑과

존경, 증오와 멸시 등 말하는 사람의 감정적태도를 문장전반에 대한 말차림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리고 보충적으로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는데 리용된다.

비교: - Сергей Владимирович, я опоздал из-за болезни.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전 아파서 늦었습니다.)

- Серёжа, я опоздал из-за болезни.

(썸료자, 난 아파서 늦었네.)

조선어에서 높임의 말차림은 《하십시오》제렬과 《해요》제렬로 나눈다.

《하십시오》제렬의 종결토에는 《-디니다/습니다, -디니까/습니까, -십시오, -디시다/읍시다, -디디다/습디다, -디디까/습디까》 등이 있다.

이 제렬의 종결토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지위가 높거나 또는 특별히 존경의 뜻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말할 때 쓰인다.

《해요》제렬의 종결토들은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높여서 말하지만 정중하게 대하는 뜻이 약하고 매우 친숙한 뜻을 나타낸다.

례: -아요/어요/여요, -지요, -는군요, -군요, -더군요, -지요, -르지요, -나요, -는가요, -ㄴ 가요, -던가요, -르가요, -르라고요, -세요, -라고요

조선어에서 같음의 말차림은 보다 공식적이고 남성적인 《하오》제렬과 사적이고 로인적인 《하계》제렬로 이루어져있다.

《하오》제렬의 종결토들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사회적지위나 나이가 같거나 비슷할 때 쓰이며 웃사람이 아래사람에게 말할 때도 쓰인다.

례: -오, -소, -시오, -디시오, -라오, -다오

《하계》제렬의 종결토들은 주로 나이많은 사람들사이나 늙은이가 젊은이들에게 말할 때에 쓰이며 허물없이 지내는 젊은이들사이에서도 쓰인다.

례: -네, -는군, -군, -는구려, -구려, -데, -더군, -마, -나, -는가, -ㄴ 가, -던가, -르라구, -계, -계나, -라구, -세, -자구, -ㄹ 세

조선어에서 낮춤을 나타내는 종결토는 《해》제렬과 《해라》제렬로 이루어졌다.

《해》제렬의 종결토에는 《-아/어/여, -지, -는지, -던지, -르지》 등이 있다.

《해라》제렬의 종결토에는 《-ㄴ 다, -는다, -다, -는구나, -구나, -누나, -더라, -더구나, -리라, -니, -더냐, -르가, -리, -아라/어라/여라, -려무나, -렘, -자, -자꾸나, -마》 등이 있다.

음역식대역수법은 로씨야사람들의 애칭이름에 대하여 전자법으로 조선어대역을 주고 역주를 달아주는 번역수법이다.

실례로 쏘련시기의 문학작품 《Как закалялась сталь》(《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에서는 주인공 빠웰 꼬르차긴(Павел Корчагин)의 이름이 중성체어휘인 Павел과 함께 애칭들인 Павка, Павлуша로도 불리운다.

례: В тот вечер на его стук в широкую парадную дверь открыла Тоня. Она, немного смутившись, сказала:

- У меня гости. Я их не ожидала, Павлуша, то ты не должен уходить.

Корчагин повернулся к двери, собираясь уйти.

- Идём, - схватила она его за рукав. - Им будет полез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обой.

И, охватив рукой, она провела его через столовую к себе. Войдя в свою комнату, она обратилась к сидевшим молодым людям и, улыбаясь, сказала:

— Вы не знакомы? Мой друг Павел Корчагин.

(이날저녁 빠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토냐는 널다란 앞문을 열었다. 토냐는 좀 당황해하며 말하는 것이었다.

《지금 내게 손님이 왔다. 난 그애들이 놀러올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왔구나. 빠블루샤야, 그렇지만 넌 가서는 안돼.》

꼬르차킨은 나가려고 문쪽으로 돌아섰다. 그러자 토냐가 빠브까의 옷소매를 붙잡으면서 《들어가자. 너하고 인사를 해두는 것이 그애들에게는 유익할게다.》 하고 한팔로 빠웰을 겨안고 식사실을 지나서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방안에 들어가자 토냐는 앉아있는 애들을 향하여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였다.

《애들아, 인사들을 해라. 이 애는 내 동무 빠웰 꼬르차킨이다.》)

실례에서 보다싶이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이름을 《빠웰》, 《빠브까》, 《빠블루샤》로 전자법으로 대역을 주었다. 로어기초지식이 없거나 로어어휘의 의미-문체적특성에 대하여 모르는 많은 독자들은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른 대상으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빠웰》이라고만 준다면 말하는 사람의 감정적태도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나라와 민족의 풍습이나 언어관습을 독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문학작품의 사명과도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위의 실례에서는 주인공의 이름을 《빠웰》, 《빠브까》, 《빠블루샤》로 그대로 주고 사랑과 친밀감이 나타나는 종결토로 번역하는 것과 함께 《Павел의 애칭》이라고 역주를 달아주었다.

주관적태도를 나타내는 로씨야사람들의 애칭이름을 조선어로 대역하는데서는 음역식 대역수법과 함께 에두름수법도 많이 쓰인다.

에두름수법은 주로 부름말을 대역하는데서 많이 쓰인다. 조선어에는 사랑과 존경, 친숙감을 나타내는 《여보》, 《선생님》, 《애》, 《아바이》 등의 부름말들과 멸시와 증오를 나타내는 《여》, 《야》, 《임마》 등의 부름말들이 있어 말하는 사람의 감정적태도를 보충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례: Увидев сына у двери, мама спросила:

— Павка, почему ты опоздал?

(어머니는 문결에 서있는 아들을 보고나서 물었다.

《애야, 왜 늦었니?》)

주관적평가의 색채를 가지는 단어들에 대한 로조대역실천에서는 여러가지 대역수법들을 능숙히 활용하는 것과 함께 주관적평가의 로어단어들이 자기의 고유한 의미밖에도 문맥에 따라 가지는 여러가지 평가적의미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례로 князек은 князь(공작)의 축소-애칭으로서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을 가리켜 쓰는 말이지만 《불쌍한 공작》, 《가없는 공작》이라는 질적으로 상반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례: Был солнечный, августовский полдень, когда я с одним русским захудалым

князьком подъехал к громадному, так называемому Щабельскому бору, где мы намеревались поискать рябчиков.

(해빛 찬란한 8월의 어느날 정오였다. 나는 몰락한 어느 한 로씨야의 가엾은 공작과 함께 들땃을 찾으려고 쇠벨스끼라고 하는 울창한 숲쪽으로 가고있었다.)

또한 조선어에서는 문맥에 따라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야유, 멸시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속어가 사랑과 존경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로어에서는 축소-애칭어휘가 야유, 멸시감을 나타낼수는 있어도 속어가 사랑과 존경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는 없다.

레: — Что же это ты, батенька, промолчал?! (령감, 넌 왜 말이 없어?!)

실례에서 батенька(아버님)는 대화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표시하는 호칭이지만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평가에 따라 야유, 멸시의 색채를 가지고 쓰이었다.

이러한 의미적특성은 문장이나 본문에서 평가-표현적문맥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볼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어휘가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여러가지 감정적색채를 나타낼수 있는 것은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적태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상대성을 띠기때문이다.

주관적평가의 색채를 가지는 어휘들은 사용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과학문체, 공식사무문체 등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과학문체, 공식사무문체에서는 과학기술적인 대상이나 현상을 이름지어주는 논리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쓰이며 이런 어휘들은 오직 정확한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있는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과학문체, 공식사무문체에서는 말하거나 글쓰는 사람의 주관적인 태도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들은 쓰이지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 외국어교수실천에서 나서는 과학리론적, 교수방법론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외국어교육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로어단어번역, 주관적평가색채